

정부의 특별조사기관 · 기금 설립을

2021. 8. 12

【서울 12일】 정부가 12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국정과제' 중 '특별조사기관 설립'과 '기금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사기관과 기금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조사기관'을 설립하여, 경찰, 검찰, 소방 등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을 설립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사기관과 기금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사기관과 기금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SECRET

[illegible]

05-42401-230

[illegible]

또 방공열로 고생하는 강덕경 (65)씨는 일본 혼슈에서 1년 동안

또한, 5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것은 치매에 걸린 남

[illegible]

이들 언론가는 독자의 불응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자비와 책임은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는 강령 규범(유스코전소)과 '사정변경의

이것이 어떠한 결론까지 피하든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의
민주당의 무관심 탓에 최소한의
예산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